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KHÓA LUẬN TỐT NGHIỆP

NGÀNH: NGÔN NGỮ ANH

Sinh viên : Trương Thị Hải Yến

HẢI PHÒNG – 202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의사소통 예절(인사, 거절, 감사)
비교

KHÓA LUẬN TỐT NGHIỆP ĐẠI HỌC HỆ CHÍNH QUY

NGÀNH: NGÔN NGỮ ANH

Sinh viên : Trương Thị Hải Yến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hS. Nguyễn Hồng Minh

HẢI PHÒNG – 202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NHIỆM VỤ ĐỀ TÀI TỐT NGHIỆP

Sinh viên: Trương Thị Hải Yến

Mã SV: 2212755005

Lớp : NA2601H

Ngành : Ngôn Ngữ Anh

Tên đề tà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의사소통 예절(인사, 거절, 감사) 비교

NHIỆM VỤ ĐỀ TÀI

1. Nội dung và các yêu cầu cần giải quyết trong nhiệm vụ đề tài tốt nghiệp

- Nghiên cứu cơ sở lý luận về văn hóa giao tiếp và phép lịch sự trong giao tiếp của tiếng Hàn và tiếng Việt.
- Phân tích các đặc điểm giao tiếp lịch sự trong tiếng Hàn và tiếng Việt thông qua ba hành vi giao tiếp: chào hỏi, từ chối và cảm ơn, trên cả phương diện ngôn ngữ và phi ngôn ngữ.
- So sánh những điểm tương đồng và khác biệt trong phép lịch sự giao tiếp giữa hai ngôn ngữ, làm rõ các yếu tố văn hóa – xã hội ảnh hưởng đến hành vi giao tiếp.
- Đề xuất một số khuyến nghị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giao tiếp và hạn chế hiểu lầm văn hóa trong giao tiếp Việt – Hàn.

2. Các tài liệu, số liệu cần thiết

- Giáo trình, tập bài giảng và các tài liệu giảng dạy về ngôn ngữ học, văn hóa giao tiếp và giao tiếp liên văn hóa.
- Sách chuyên khảo và các công trình nghiên cứu khoa học của tác giả Việt Nam và Hàn Quốc liên quan đến đề tài.
- Các tài liệu, bài báo khoa học bằng tiếng Việt và tiếng nước ngoài phục vụ cho việc phân tích, so sánh trong khóa luận
- Tài liệu khảo sát thực tế từ người Việt và người Hàn trong độ tuổi từ 18 đến 50 nhằm hỗ trợ cho việc phân tích khóa luận

3. Địa điểm thực tập tốt nghiệp

- Công ty TNHH PK FOOD VILLE

CÁN BỘ HƯỚNG DẪN ĐỀ TÀI TỐT NGHIỆP

Họ và tên : Nguyễn Hồng Minh

Học hàm, học vị : Thạc sĩ

Cơ quan công tác :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Nội dung hướng dẫn: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의사소통 예절(인사, 거절, 감사) 비교

Đề tài tốt nghiệp được giao ngày 6 tháng 10 năm 2025

Yêu cầu phải hoàn thành xong trước ngày 27 tháng 12 năm 2025

Đã nhận nhiệm vụ ĐTTN

Sinh viên

Đã giao nhiệm vụ ĐTTN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Hải Phòng, ngày tháng năm 2025

XÁC NHẬN CỦA KHOA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PHIẾU NHẬN XÉT CỦA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ỐT NGHIỆP

Họ và tên giảng viên: *Nguyễn Hồng Minh*

Đơn vị công tác: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Họ và tên sinh viên: *Trương Thị Hải Yến* Chuyên ngành: *Ngôn Ngữ Anh*

Đề tài tốt nghiệp: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의사소통 예절(인사, 거절, 감사) 비교*

Nội dung hướng dẫn:

.....

1. Tinh thần thái độ của sinh viên trong quá trình làm đề tài tốt nghiệp

.....

.....

.....

2. Đánh giá chất lượng của đề án/khóa luận (so với nội dung yêu cầu đã đề ra trong nhiệm vụ Đ.T. T.N trên các mặt lý luận, thực tiễn, tính toán số liệu...)

.....

.....

.....

3. Ý kiến của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ốt nghiệp

Được bảo vệ Không được bảo vệ Điểm hướng dẫn

Hải Phòng, ngày ... tháng ... năm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PHIẾU NHẬN XÉT KẾT QUẢ THỰC TẬP TỐT NGHIỆP

Họ và tên sinh viên: Trương Thị Hải Yến Ngày sinh: 25/10/2004

Lớp: NA2601H Chuyên ngành: Ngôn Ngữ Anh Khóa: 26

Thực tập tại: Công Ty TNHH PK FOOD VILLE

Từ ngày:/...../... đến ngày/...../...

1. Về tinh thần, thái độ, ý thức tổ chức kỷ luật:

.....

.....

.....

.....

2. Về kết quả thực tập nghề nghiệp:

.....

.....

.....

.....

.....

.....

3. Đánh giá chung:

.....

.....
.....

....., ngày tháng năm ...

Xác nhận của lãnh đạo cơ sở thực tập

Cán bộ hướng dẫn thực tập của cơ sở

NỘI DUNG KHÓA LUẬN GỒM:

MỤC LỤC

LỜI CAM ĐOAN

LỜI CẢM ƠN

DANH MỤC CHỮ VIẾT TẮT

DANH MỤC BẢNG BIỂU

PHẦN MỞ ĐẦU

1. Tính cấp thiết của đề tài
2. Mục đích nghiên cứu
3. Câu hỏi nghiên cứu
4. Đối tượng và phạm vi nghiên cứu
5. Phương pháp nghiên cứu
6. Nội dung của khóa luận

CHƯƠNG 1: CƠ SỞ LÝ LUẬN VỀ ... (vấn đề nghiên cứu)

1.1. Khái niệm

1.2. Nội dung

1.3. Tiêu chí đáng giá...

1.4. Các yếu tố ảnh hưởng ...

1.5...

(tùy theo vấn đề nghiên cứu mà các nội dung phần này cần thiết kế cho phù hợp)

CHƯƠNG 2 PHÂN TÍCH THỰC TRẠNG ... (vấn đề nghiên cứu tại doanh nghiệp)

2.1. Giới thiệu về tổ chức DN

2.2. Đánh giá thực trạng vấn đề nghiên cứu tại tổ chức DN...

2.3. Những nguyên nhân dẫn đến

CHƯƠNG 3 MỘT SỐ BIỆN PHÁP NHẪM ...

KẾT LUẬN

TÀI LIỆU THAM KHẢO

PHỤ LỤC (nếu có)

서론

1. 연구 주제 선택 이유

저는 졸업논문 주제로 ‘한국과 베트남의 의사소통 예절 비교’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과학적·실천적 근거를 갖춘 중요한 주제이다. 우선, 이 주제는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높은 주제로, 경제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베트남과 한국 간 전방위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다문화 환경에서 효과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회적 예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과 국제 협력 또는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학문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교문화와 사회언어학 분야에 기여하며, 두 민족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유사점(예: 유교의 영향, 연장자 존중)과 차이점(예: 한국의 복잡한 존댓말 체계와 베트남의 유연하고 정서 중심적인 의사소통)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양국의 문화와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호칭, 인사, 고개 숙이기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주제는 실천적 가치가 높다. 단순히 후속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 또는 베트남인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인식을 높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2. 연구 목적

‘한국과 베트남의 의사소통 예절 비교’라는 졸업논문 주제 선택은 여러 과학적 근거와 더불어, 현재 양국 간 교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이 주제는 시의적절하며 필요성이 높은 주제로, 경제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베트남과 한국 간 전방위적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다문화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사회적 예절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는 특히 학생, 대학원생,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호칭, 인사, 고개 숙이기 등 구체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주제는 실천적 가치가 높다. 단순히 후속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 혹은 베트남인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문화 간 인식을 높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3. 연구 대상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은 표준 의사소통 예절과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형이며, 조사 대상은 18 세에서 50 세 사이의 한국인과 베트남인이다. 이 연령대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현재 베트남-한국 교류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대표성을 가진 사회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대상 그룹에는 학생, 사회 초년생, 관리·리더 계층이 포함되며, 학습, 업무, 상업적 협상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문화 간 의사소통 예절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또한 18 세에서 50 세 연령대는 젊은 세대(Gen Z, 밀레니얼)의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사고와 중년 세대의 전통적 가치 보존 성향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 의사소통 문화 비교 연구를 다층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실천적 가치가 높다.

4. 연구 방법

연구의 실용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학적 조사 방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 방법은 18 세에서 50 세 사이 대상 집단의 의사소통 예절 실제 적용 현황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다. 설문 문항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존댓말 사용 정도와 연령·지위에 따른 호칭 사용, 인사 행위 차이(고개 숙이기 vs. 고개 끄덕임), 문화 간 의사소통 금기 사항 인식 등을 조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처리되며, 비교

논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문화적 요인이 실제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행동 및 언어적 의사소통 문화에 관한 이론적 기초.....	15
1. 의사소통 예절과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개관.....	15
2. 개념과 역할 2.1. 의사소통 예절.....	16
2.2. 의사소통 문화	17
2.3. 행동과 언어	18
3. 유교가 의사소통 문화에 미치는 영향.....	19
4. 행동 유형 분류 4.1. 인사 행동.....	22
4.2. 거절 행동	23
4.3. 감사 행동	23
제 2 장: 인사, 거절 및 감사 의례 비교	26
1. 인사 의례 비교	26
1.1. 규칙화 및 엄격성의 차이	26
1.2. 사회적 기능의 차이	26
1.3. 언어적 의사소통	27
1.4. 비언어적 의사소통	28
2. 거절 의례의 비교	30
2.1. 유사점	30
2.2. 차이점	32
2.3. 음식/선물 거절 의례	33
3. 사회적 기능 분석	35
3.1. 반복 거절 행위의 사회적 규범	36

4.. 감사 표현 비교: 빈도와 강조 정도의 차이.....	37
4.1. 감사 표현 빈도의 차이	37
4.2. 감사 표현의 비교: 뉘앙스와 격식 수준 분석	38
4.3. 제스처 비교: 한국에서의 두 손 사용과 베트남에서의 사용 방식 비교....	40
5.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의사소통 의례 특징	41
5.1. 한국인의 의사소통 예절 특징	42
5.2. 베트남인의 의사소통 예절 특징	45
제 3: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원인, 문제 및 권고	47
1. 문화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	47
2. 한-베트남 의사소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48
3. 권장 사항 및 해결 방안.....	49
3.1. 존댓말 사용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	49
3.2. 의사소통 예절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	49
3.3. 정중하지 않은 거절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	49
3.4. 감사 표현 빈도 충돌에 대한 해결 방안	50
3.5. 거절 예절 오해에 대한 해결 방안	50

제 1 장: 행동 및 언어적 의사소통 문화에 관한 이론적 기초

1. 의사소통 예절과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개관

의례 또는 사교 예절은 특정 집단이나 국가, 혹은 전문적 환경에서 수용되는 표준화된 행동 규칙이자 관습의 체계이다. (이러한 예절은 구성원 간의 명확하고 공손한 상호작용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직장 내 의사소통 문화는 근무 환경과 상하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지향점이다. 이는 노동의 효율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해당 기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국제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 문화(Communication Culture)와 예절(Etiquette)은 기초적인 범주로서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하며, 정보 전달 과정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 문화는 특정 공동체 또는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관점 및 암묵적인 행동 규범으로 구성된 복합적 체계로 정의된다. 이 체계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메시지로 부호화(encoding)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자가 이를 해독(decoding)하고 반응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문화적 필터(cultural filter)로 기능한다. 각 문화의 특성—예를 들어 고맥락·저맥락 문화(High/Low Context)나 권력 거리 지수(Power Distance)—에 따라 의사소통 문화는 발화의 직접성 또는 간접성의 정도, 침묵의 역할,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규정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문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 방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문화가 추상적인 가치 체계라면, 의사소통 예절(Communication Etiquette)은 그러한 가치들이 실제 담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형태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절은 시민 사회에서 외교 및 비즈니스 환경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맥락에서 확립되고 광범위하게 수용된 행동 규칙, 사회적 관습

및 행위 규범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의사소통 예절은 크게 언어 예절(호칭 사용, 경어법), 행동 예절(신체 언어, 인사 제스처), 그리고 물적 예절(복장, 선물)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예절의 핵심적인 기능은 예측 가능한 행동의 틀(predictable framework)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문화와 예절의 관계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의사소통 문화는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철학적 기반과 가치 체계를 제공하는 반면, 예절은 그러한 존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예컨대 어떤 방식으로 인사하고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예절은 사회적 위계 질서(서열 구조)를 형성하고 공고히 하며, 조화(harmony)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예절의 준수는 단순한 사회적 예의범절을 넘어, 의사소통 주체의 문화적 소양, 전문성 및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며, 다문화적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개념과 역할

2.1. 의사소통 예절

의사소통 예절은 특정한 환경(사회, 비즈니스, 외교 등)에서 표준화되어 공적으로 수용된 행동 규칙, 사회적 관습 및 행위 규범의 총체로 정의된다. 의사소통 예절은 행위 차원에서 구현된 의사소통 문화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 문화가 암묵적인 가치 체계라면, 의사소통 예절은 그러한 가치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의사소통 예절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언어 예절로서 호칭 사용과 경어법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행동 예절로서 신체 언어, 제스처, 인사 및 절하기 규범을 포함한다. 셋째, 물적 예절로서 복장, 명함 교환 방식, 선물 증정 등이 이에 속한다.

의사소통 예절은 모든 다문화 상호작용에서 실천적 도구이자 전략적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베트남과 한국 간 긴밀한 협력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우선, 예절은 유교적 영향을 받은 양국 문화의 특징인 위계 질서를 실행하고 존중하는 가장 가시적인 수단이다. 경어 사용과 같은 언어 예절, 인사 시 자세와 절의 정도와 같은 행동 예절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위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역할 외에도, 예절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절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초회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색함을 최소화하고 상호작용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특히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예절이 양측의 체면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며, 의견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공손한 제스처를 통해 조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의사소통 예절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 작용하며, 이는 아시아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약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개인이 상대방의 예절을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업무 중심의 관계를 개인적 관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이며 성공적인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2. 의사소통 문화

의사소통 문화는 특정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태도 및 암묵적인 행동 규범으로 구성된 복합적 체계로 정의되며, 이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메시지를 부호화, 전달 및 해독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좌우한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문화를 맥락 의존도(context-dependence)에 따라 분류하며, 베트남과 한국은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의사소통 문화는 전체 상호작용 과정을 형성하는 기초적 틀로서, 베트남-한국 관계의 성공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문화는 중요한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관계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의사소통자는 간접적인 행동을 정확히 해독해야 한다. 두 번째 역할은 관계를 관리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의사소통 문화는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상호 존중이 보존된다. 또한, 의사소통 문화는 사회적 위계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베트남어에서 경어 사용과 존칭어 사용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며, 모든 의사소통이 역할, 연령, 지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문화는 개인적 관계 구축 활동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아시아 협력에서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2.3. 행동과 언어

행동과 언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주요 채널로서 동시에 작동하며, 의사소통 예절과 의사소통 문화의 규칙에 의해 엄격하게 조절된다.

언어

구두 언어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단어,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한국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단순히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식과 호칭 방식에도 있다. 언어 예절은 지위와 연령에 맞는 경어 및 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규정한다.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에서 언어의 역할은 종종 간접적이다. 화자는 부정적 소식 전달이나 거절 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기 위해 완곡하고 공손하며 외교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에 따라 청자는 문화적 능력을 발휘해 내포된 의미를 해독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성은 체면을 보호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행동

비언어적 언어는 구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체 언어(제스처, 표정), 개인적 거리, 의사소통 시간, 그리고 물적 예절(복장, 명함 교환) 등이 포함된다.

비언어적 언어의 역할은 베트남-한국 의사소통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는 두 나라 모두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라는 특성 때문이며, 많은 경우, 비언어적 행동(예: 앉은 자세, 시선, 침묵)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구두 언어보다 더 많은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

위계 존중: 비언어적 행동은 위계를 표현하는 주요 도구이다. 예를 들어, 절하기 예절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절의 깊이와 지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네거나 장시간 상급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것도 위계를 규정하는 행동이다.

태도 전달: 신체 언어는 종종 구두 언어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로 간주된다. 행동 예절을 준수하는 것은 의사소통자의 전문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며, 초기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 관계 형성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한국 다문화 환경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자가 언어(간접적 표현, 경어)와 행동(위계 존중, 공손한 제스처)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두 요소 모두 의사소통 문화가 규정하는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 유교가 의사소통 문화에 미치는 영향

유교는 조선 시대(1392-1910) 초기에 한국에 도입되어, 한반도에서 약 2,000년 동안 존재하고 발전해왔다. 특히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유교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불교, 도교, 샤먼교를 주변으로 밀어냈다. 한국의 유교(송나라 유학 기반)는 오륜(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 체계와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일방적 의무와 책임(신하의 군주에 대한 의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 등)을 강조하였다.

이 다섯 가지 관계 중 세 가지는 가족 관계(부자, 부부, 형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인에게 전통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고, 오랫동안 한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철학으로 인식되어 왔다.

유교는 한국 역사 과정에서 경제, 정치, 문화·사회 등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유교적 규범은 한국인의 일상생활 여러 측면에 스며들었으며, 특히 충성, 효, 성별 차이를 중시하였다. 이는 계급 불평등과 남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의 영향력은 조선 시대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은 ‘동방 예의지국’으로 불릴 만큼 위계 질서와 예절 규범이 엄격하며, 심지어 중국보다 더 엄격하다고 평가된다.

유교는 또한 베트남에 북속 시대부터 유입되어 약 2,000 년 동안 존재하였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종교 및 토착 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였다. 유교가 유입되기 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전통 문화의 기초 위에 민주적 평등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유교의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베트남 문화는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조화로운 성격을 유지하였다. 중세 시기에는 삼교동원(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이 여전히 기본을 이루었다. 근대 이후 서구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유교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였고, 일부에서는 유교를 구시대적 요소로 보고 현대화·문명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유교는 특정 시기 유교 사상(고전 유교, 신유교, 한유, 송유, 명유, 청유)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베트남 유교 정신은 인(仁), 의(義)를 중시하며, 감정과 조화를 강조하고, 오륜 질서에서 양방향적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한 조화를 중시한다.

유교의 이론적 기초는 ‘정명(正名)’과 ‘오륜(五倫)’ 원칙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모든 개인은 사회에서 명확한 위치와 역할이 규정된다. 위계 질서는 평등에 기반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에 따른 계층화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유교가 위계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오륜과 역할 체계 확립:** 유교는 다섯 가지 기본 관계(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를 규정하며, 친구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관계는 위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상급자(권력)와 하급자(복종)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체계는 현대 의사소통 환경에도 적용되며, 직위(상사-직원)와 연령(연장자-연소자)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권력 거리 강화:** 유교는 호프스테드(Hofstede)의 모델에서 나타나는 고권력 거리(High Power Distance)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권력의 불평등이 널리 수용된다. 이는 의사소통 예절이 상급자나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경어 사용과 절하기 규칙은 지위 차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3. **예와 공손 촉진:** 유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禮)와 규범 체계를 강조한다. 예는 현대 의사소통 예절의 철학적 기반이 된다. 예의 준수는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효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유교가 형성한 위계 질서는 베트남-한국 의사소통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다. 이 메커니즘은 모든 행동, 언어, 비언어적 제스처가 상대방의 지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체면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비록 베트남과 한국이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와 집단주의적 성향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지만, 두 나라의 의사소통 문화에는 예절 실천과 관계 처리 방식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핵심적 유사성 측면에서, 두 국가는 모두 연령과 직위를 기반으로 한 위계 질서를 중시하며, 그 결과 고권력 거리(High Power Distance)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의사소통이 항상 조화, 간접적 표현, 체면 손상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적 맥락을 형성한다. 베트남인과 한국인 모두 전문적 거래 이전에 개인적 관계와 신뢰 구축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주요 차이는 위계와 사회적 예절을 표현하는 규범화 정도와 엄격성에서 나타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가 엄격한 경어법 체계와 격식 있는 예절을 통해 고도의 규범성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정감 어린 관계를 중시하며 친근한 호칭 사용과 감정 표현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상의 도전을 초래한다. 베트남 학생들은 때때로 지나치게 조기에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예절에 엄격한 한국 파트너에게 비공식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학생들이 의사소통 방식을 유연성에서 한국식 높은 규범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절 규칙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협력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4. 행동 유형 분류

4.1. 인사 행동

인사 행동은 비언어적 행동 및 의례 중 가장 초기이자 중요한 행동 그룹으로, 관계 형성과 사회적 위치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사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제스처/행동 인사(한국 문화에서 절, 끄덕임, 합장 등). 둘째, 신체 접촉을 통한 인사(악수 등). 셋째, 언어적 인사(경어 사용 및 고정된 언어 표현).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시작 절차를 넘어, 사회적 규범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사교 기능을 수행한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계 확인 및 실행이다. 사회적 규범은 인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며, 절의 깊이, 악수 순서, 경어 사용 시점까지 세세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인사 행동은 사회적 위계를 강화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존경을 표하도록 하여 초기 상호작용부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두 번째 기능은 불확실성 감소이다. 다문화 환경에서 명확히 규정된 인사 의례(예: 명함 교환 방법, 절의 시간)는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작용한다. 인사 의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어색함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다음 의사소통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마지막으로, 인사 행동은 조화 유지 및 체면 보호 기능도 수행한다. 사회적 규범은 인사 시 최대한 공손함을 유지하고, 결례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의례를 준수함으로써, 의사소통자는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고 신뢰 구축과 장기적 협력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요약하면, 인사 행동은 관계를 확인하고 베트남과 한국의 고맥락 문화에 적합한 의사소통 틀을 설정하는 복잡한 사회적 메커니즘이다.

4.2. 거절 행동

거절 행동은 베트남과 한국 간의 다문화 의사소통에서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이다. 요청이나 제안을 직접 거절하는 것은 종종 무례하게 여겨지고 체면을 손상시키며 관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자는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간접적 공손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거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양국 문화권에서 관계의 지속성을 시험하는 고도의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거절의 강도를 완화하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언어적 및 행동적 기법의 집합이다. 구체적으로, 절대적 거절문을 사용하는 대신 화자는 불확실함을 표현하거나 지연 전략을 사용하며, 고맥락 문화에서는 이를 정중한 거절로 암묵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거절 시 사과와 객관적 이유를 수반하여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전환한다. 이로부터 베트남-한국 의사소통에서는 메시지의 표면적 의미보다 행간에 숨겨진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맥락 해석 능력이 상호 이해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간접 거절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화자와 청자 모두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다. 간접 전략은 청자가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게 하며, 화자를 공손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의사소통자로 인식하게 한다. 요약하면, 베트남-한국 간 의사소통에서 거절은 간접적 공손 전략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다문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각 문화 특유의 체면 유지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3. 감사 행동

베트남-한국 간의 다문화 의사소통에서 감사 행동은 단순한 사회적 인사말을 넘어, 각국의 문화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복잡한 의례이다. 감사의 정도는 정중함과 행동의 적절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존중과 책임 원칙을 투영한다. 따라서 양국 간 의사소통에서 감사는 개별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중함의 정도는 감사를 결정짓는 첫 번째 핵심 요소이다. 한국 문화에서 상급자에게 감사를 표할 때는 경어 사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최대한의 존중을 나타내는 의례적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고개를 숙이는 각도나 물건을 전달하는 손의 위치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 역시 정중함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감사 표현의 성패는 단순히 '고맙다'는 메시지의 전달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형식적 격식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도움의 가치에 상응하는 상호 대응성이다. 집단 문화 내에서 감사는 받은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며, 큰 도움에 대한 단순한 구두 감사는 자칫 진정성 결여로 비취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의 표현은 구체적인 보답의 약속이나 식사 초대, 선물 전달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감사가 단발적인 감정 표출에 그치지 않고, 상호 호혜적 관계(Reciprocity)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교류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초가 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베트남-한국 간 의사소통에서 감사 행동은 정중함과 상호 대응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의례적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호의를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해당 문화권이 요구하는 보답의 규범과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제 2 장: 인사, 거절 및 감사 의례 비교

1. 인사 의례 비교

인사 의례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의례적 행동으로, 사회적 위계 질서를 즉시 설정하고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국가 모두 깊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 존중을 중시하지만, 이러한 의례를 수행하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1.1. 규칙화 및 엄격성의 차이

한국은 인사 의례를 매우 규칙화되고 엄격하게 수행한다. 주요 인사 방식은 절(절하기)로,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갖춘 의식이다. 절의 깊이(15°에서 90°)와 자세 유지 시간은 인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지위 및 연령 차이에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의례는 유연성이 낮으며, 대부분의 공식 상황에서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엄격성의 목적은 첫 순간부터 위계를 절대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인사 의례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가벼운 고개 끄덕임, 전통 의례에서의 합장,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악수가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베트남의 의사소통 특성을 반영하며, 공식적 예절에서 친근한 태도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 사회적 기능의 차이

두 나라 모두 인사의 일반적 목적은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회적 기능에서는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인사 의례가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하게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절의 엄격함은 규칙 준수와 권력 거리의 수용을 강조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인사 의례가 주로 관계를 시작하고 환대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유지되지만, 유연성이 있어 베트남인은 인사 직후 가족적 호칭 사용하며 빠르게 친밀한 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인사 예절은 규칙성이 매우 높고 엄격한 반면, 베트남의 인사 예절은 유연하고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주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 파트너와 의사소통할 때 유연한 행동 방식을 엄격한 규칙 준수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존중과 위계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1.3. 언어적 의사소통

구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특히 인사 및 호칭 의례에서의 사용 방식은 베트남과 한국 간 규칙화 정도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권력 거리와 고맥락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 베트남의 의사소통에서 인사 의례는 유연하고 가족 중심적이다. 복잡한 호칭 체계는 이름이나 직함뿐만 아니라 관계와 혈연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화자는 신속하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공식적·개인적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은 보다 규칙적이고 엄격한 언어 체계를 적용한다. 인사 표현은 존댓말의 수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예: 일반적인 정중한 상황에서는 안녕하세요를 사용하고, 공식적이거나 매우 높은 지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안녕하십니까를 사용), 이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인사말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 구조 전반(존댓말)에 스며들어 있어, 화자는 듣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법, 어휘, 어미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함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도 위계 질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주요 차이는 관계 중심의 유연성(베트남)과 규칙 중심의 위계성(한국)에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커뮤니케이터가 한국 파트너와 소통할 때, 익숙한 유연성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한 존댓말 규칙을 준수하여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존중을 결여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된다.

1.4.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의미하며, 표정, 몸짓, 시선, 자세, 공간 활용, 목소리 톤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는 메시지 전달과 감정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진다.

베트남의 의사소통에서는 비언어적 행동이 보다 유연하고 친밀한 특성을 나타낸다. 주요 인사 동작으로는 악수(주로 비즈니스 환경이나 수평적 관계에서 사용됨), 끄덕임, 미소 등이 있으며, 이는 환대와 호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몸짓과 자세를 통한 의사소통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친근한 상황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적 호칭 체계와 잘 조화를 이룬다. 또한 개인 간의 대화 거리도 서구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깝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 사회에서 관계 중심적이고 유연한 의사소통 문화를 반영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위계와 존중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인사 동작으로는 절하기, 고개 숙여 인사하기, 손을 가슴 앞에 모으는 제스처 등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몸짓과 자세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엄격하게 규정되며, 개인 간의 친밀감보다는 존중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대화 시 개인 간의 거리 역시 베트남에 비해 비교적 넓게 유지되며, 이는 사회적 공간과 위계 질서를 반영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언어적 존댓말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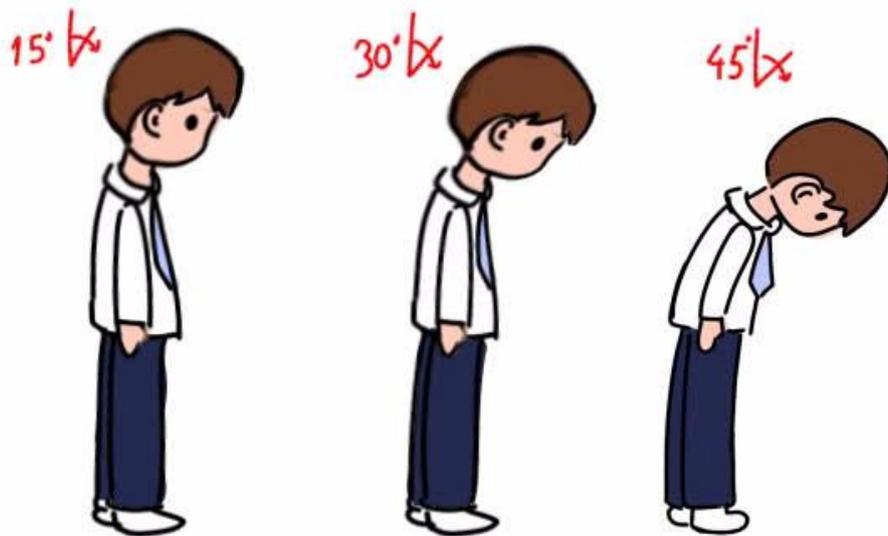
작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위계와 예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한국은 매우 규칙적이고 엄격한 비언어적 행동 체계를 적용한다. 주요 인사 행동은 절(또는 인사)으로, 이는 필수적인 예절이며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에 따라 각도 수준별로 세밀하게 구분된다.

+가벼운 인사 (15°): 하급자나 동급 동료를 대상으로 하며, 일상적인 사회적 인사를 의미한다.

+중간 인사 (30°): 가장 일반적인 인사 방식으로, 고객,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직장 내 상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표준적인 존중을 나타낸다.

+깊은 인사 (45° 이상):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깊은 감사나 사과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절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행동 조절 기제임을 뒷받침한다. 잘못된 각도로 절을 수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결례로 여겨져 체면을 손상시키거나(또는 동급자에게 지나치게 깊이 절할 경우)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반면, 베트남인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단순히 악수나 끄덕임만 하고 절을 생략할 경우, 위계와 존중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 거절 의례의 비교

거절 의례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행동 중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높은 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에서는 단순히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조차도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조화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수행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거절의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일 경우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완곡한 표현, 제스처, 표정, 말투 등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거절 의사를 전달한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베트남에서는 관계 중심적이고 유연한 의사소통이 강조되므로, 거절 시에도 친밀함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계와 예절이 강조되므로, 거절 시에도 상대방의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존중하는 표현과 행동이 요구되며, 공식적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전략이 적용된다.

2.1. 유사점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거절 행동은 단순한 언어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화자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깊이 반영한다.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경우, 거절 방식에는 여러 유사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유교 사상의 강한 영향을 받아 조화, 위계, 체면 보호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우선, 베트남인과 한국인 모두 직접적인 거절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사회적 지위나 나이에서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더욱 그렇다. 정직하게 부정문을 사용하는 대신, 화자는 객관적 이유를 제시하거나, 결정을 연기하거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거절 방식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원만하고 조화로운 의사소통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두 문화권 모두 거절 행동과 함께 사과 표현을 결합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베트남어에서는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와 같은 표현이 거절 발화의 앞이나 뒤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존중과 겸손한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과 표현의 사용은 반드시 화자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로 예절적인 기능과 의사소통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베트남인과 한국인 모두 거절 시 대안이나 약속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간대를 제안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요구를 즉시 충족시킬 수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적 의도를 보여주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직접적인 거절을 금기시하는 공통된 원칙을 공유한다. “아니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요청자의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두 문화권 모두 ‘간접적 공손 전략(Indirect Politeness Strategy)’을 사용한다. 이 전략에는 답변을 지연시키거나(연기), 거절의 원인을 개인적 의사 부족이 아닌 객관적 제약으로 돌리는 방법이 포함된다(예: “회사 규정 때문에,” “가정일로 바빠서”). 이러한 전략의 공통 목적은 외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부정적 메시지를 완화하고,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는 데 있다.

요약하면,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거절 방식에서 나타나는 유사점은 간접적인 의사소통 스타일, 체면 중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조화 유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히 공통된 문화적 토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두

언어 공동체에서 개인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 차이점

주요 차이점은 거절의 심각성과 암시 정도에 있다.

비록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아시아 문화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거절 방식에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두 공동체 간에는 언어 전략과 거절 행위 표현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 체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의사소통 예절의 규범화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첫째, 한국인의 거절 방식은 베트남인보다 규범화 정도가 더 높다. 한국어에서 거절의 형태 선택은 존댓말 체계와 사회적 위계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화자는 듣는 사람의 나이, 지위, 관계에 맞춰 문장 끝 어미, 공손도, 어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위계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절 방식은 보다 유연하며 의사소통 상황과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한국인은 거절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손한 언어 형태를 통해 부드럽게 전달한다. 반면, 베트남인은 종종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단호한 답변을 피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한국인의 의사소통에서는 사과와 완곡 표현을 사용한 후에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의도를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베트남인은 때때로 이야기를 길게 끌거나 주제를 전환하거나, 듣는 사람이 거절 의도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답변 지연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베트남 문화에서는 즉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간접적인 거절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반면, 한국 문화에서는 응답하지 않거나 늦게 응답하는 것이 특히 직장 환경에서 책임감 부족이나 무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한국인은 거절일지라도 보다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두 문화권의 업무 환경에서 거절 발화가 사용되는 맥락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인은 개인적 의사소통과 업무적 의사소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직업 환경에서는 거절 행동이 보다 규범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예절을 준수한다. 반면, 베트남인은 업무 의사소통에서도 감정과 개인적 관계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거절 방식이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표현되며, 때로는 내용상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거절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주로 규범화 정도, 표현의 직접성,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 처리 방식에서 드러난다.

한국에서는 거절을 매우 위험도가 높은 행위로 간주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절 의사는 최대한 암묵적으로 전달되며, 종종 침묵, 장기적 지연, 또는 심지어 중재자를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한국인은 거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듣는 사람은 간접적인 거절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높은 문화적 민감성을 요구받는다.

베트남에서도 직접적인 거절을 피하지만,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베트남인은 친근한 요소와 길고 애매한 설명을 사용하여 답변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비록 여전히 간접적이지만, 거절 방식은 한국보다 덜 엄격하고 의례적이지 않아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두 나라 모두 간접적인 거절 전략을 사용하지만, 한국의 거절 의례는 체면을 해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의례적이고 엄격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침묵이나 장기적인 지연이 거절의 가장 명확한 신호임을 인식하고, 불필요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3. 음식/선물 거절 의례

베트남과 한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음식, 술 또는 선물을 거절하는 행위를 절대적인 거절로 간주하지 않고, 규범화된 사회적 의례(social ritual)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음식을 권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한 물질적 의미를 넘어, 관심과 호의, 그리고 관계 유지 의지를 상징한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음식이나 선물을 거절하는 행동은 민감한 의례로 간주되며, 의사소통 참여자는 상대방, 즉 초대자나 선물 제공자의 체면을 해치지 않도록 문화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인과 한국인 모두 음식이나 선물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즉시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기 거절은 대개 의례적 성격을 띠며, 초대받은 사람이 겸손과 예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문화에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Thôi, anh/chị đừng khách sáo”(괜찮아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마세요) 또는 “Em không dám nhận đâu”(저는 받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괜찮습니다” 또는 “사양하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초대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된다.

둘째, 거절은 종종 감사와 사과의 표현을 동반하며, 이는 초대자나 선물 제공자의 마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문화 모두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음식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베트남인과 한국인은 이미 식사했거나, 가져가기 불편하거나, 상대방에게 폐를 끼칠까 봐와 같은 객관적인 이유를 짧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초대 - 거절 - 재초대”의 의례가 두 문화에서 꽤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초대자는 첫 번째 거절 후에도 계속 권유하며, 초대받은 사람이 여러 차례 단호하게 거절할 때만 거절이 수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가 지속되는 정도는 친밀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거절 행위를 마무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눈에 띈다. 베트남 문화에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여전히 음식이나 선물의 일부를 받아 “호의 표시”를 하며,

초대자가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거절을 결정하면 보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며, 동시에 감사와 사과의 말을 강조하여 예의를 지킨다.

결론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음식 및 선물 거절 의례는 겸손, 존중,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체면을 지키는 가치와 같은 공통된 문화적 가치를 명확히 반영한다. 그러나 각 문화는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국제적 혹은 다문화 환경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문화적 민감성과 이해가 필요하다.

3. 사회적 기능 분석

베트남과 한국의 거절 의례에서 사회적 기능 분석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거절 행위는 단순히 부정적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개인 간 관계의 조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거절은 민감한 의사소통 행위로 간주되며, 화자는 갈등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언어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거절 의례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직접적인 부정 표현 대신, 베트남인과 한국인은 간접적 표현을 선택하며, 여기에 사과, 감사, 완화적 요소를 결합한다. 이러한 요소는 거절의 내용을 부드럽게 만들고, 정중한 태도와 공동체 의사소통 규범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둘째, 거절 행위는 화자와 청자 모두의 체면(face)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중하게 거절함으로써 청자가 부정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며, 화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즉 베트남과 한국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한, 거절 의례는 사회적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거절의 직·간접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화자는 참여자 간의 친밀도, 상하 관계 등 관계적

요소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와 행동 규범이 안정적으로 강화되고 유지된다.

또한, 거절 행위는 의사소통에서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의 있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비록 거절 내용이 부정적일지라도, 표현 방식은 긍정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유지에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거절 의례는 사회적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예의 유지, 체면 보호, 사회적 관계 조정을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거절 행위의 사회적 기능 분석은 두 문화 공동체 간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문화적 환경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적 기능을 지닌 거절 행위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 진정성 확인

이 행위는 초대자나 선물 제공자에 대한 은밀한 시험으로 기능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하며(보통 두세 번), 이후에 수락한다. 초기 거절은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락자의 겸손과 예의를 나타낸다. 반대로, 초대자가 초기 거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유하는 것은 진정성, 친절함,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 체면 유지

초기 거절 행위는 양측이 체면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수락자는 탐욕스럽거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며, 초대자는 자신의 친절과 호의를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가진다.

3.1. 반복 거절 행위의 사회적 규범

사회적 상황에서의 거절 행위는 반복과 양보에 대한 암묵적 규칙을 따른다.

1. 첫 번째 거절: 가벼운 거절과 함께 감사 인사 및 사회적 이유를 제시한다.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다.
2. 두 번째 거절: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강한 거절을 하면서, 상대방의 친절에 대해 깊이 감사함을 표현한다. 이때 초대자는 초대의 이유를 강조하여 진정성을 나타내야 한다.
3. 세 번째 거절 후 수락 (양보): 초대자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시도까지 지속한 후, 초대받은 사람이 수락한다. 이때 수락은 깊은 감사와 주최자의 친절을 칭찬하는 표현을 동반한다. 반복 거절 후 양보는 사회적 의무를 완수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특히 한국의 음주 의례에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처음에는 잔을 다 비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사회적 환경에서 존중을 표현하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복잡한 의례의 일부이다.

결론적으로, 음식이나 선물에 대한 거절 행위는 실제 거절이 아니라 고맥락 문화에서의 복잡한 예절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너무 빨리 수락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초대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이러한 반복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상대방에 대한 겸손과 존중을 나타내야 한다.

4.. 감사 표현 비교: 빈도와 강조 정도의 차이

4.1. 감사 표현 빈도의 차이

감사 표현은 관계를 강화하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례이다. 그러나 감사 표현의 빈도와 강조 정도는 두 문화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규범화 정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의사소통에서는 감사 표현의 빈도와 강조 정도가 상당히 높으며, 일상적이고 작은 상황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감사합니다”나 “고마워요”와 같은 표현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상인, 동료, 상사 등 누구와 상호작용하는 존댓말 규칙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러한 높은 빈도는 문화적 ‘예(禮)’의 원칙을 반영하며, 사소한 교환이라도 반드시 의례적으로 인정되고 응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강조 정도는 감사의 말을 할 때 가벼운 15° 인사 절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과 결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존중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반대로, 베트남의 의사소통에서는 감사 표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중요한 상황이나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때 사용된다. 일상적이고 작은 상호작용, 특히 친밀한 관계, 친구, 혹은 동료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감사 표현이 비언어적 행동(미소, 고개 끄덕임, 친근한 제스처 등)으로 대체되거나, 미래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베트남 문화의 집단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베트남에서는 상호 도움을 이미 확립된 관계에서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므로, 지나치게 자주 감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격식적이거나 거리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감사 표현을 사회적 공식으로 간주하며, 높은 빈도로 사용하여 격식과 사회적 규범을 유지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감사 표현이 보다 감정적이고 유연하게 사용되며, 주로 중요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인과 상호작용할 때 감사 표현의 빈도와 격식 수준을 높여,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4.2. 감사 표현의 비교: 뉘앙스와 격식 수준 분석

감사 표현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격식의 정도를 조절하고, 도움의 행위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베트남: 유연한 뉘앙스와 강조 정도

베트남의 감사 표현은 유연한 뉘앙스를 지니며, 주로 강조 정도와 감정 표현을 통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Cám ơn”과 “Rất cảm ơn”은 주로 감정의 강도와 격식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이 체계는 문법적 존댓말과 같은 의무적 격식 단계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신 감사 표현과 호칭 체계(예: “Em cảm ơn Anh/Chị”)를 결합함으로써 대화에서 친밀감과 관계성을 나타낸다.

베트남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개인적인 고마움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며, 때로는 감사의 행위를 향후 도움의 약속이나 상호 교환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한국: 계층적 뉘앙스와 존댓말의 역할

한국의 감사 표현은 명확한 구분과 구조를 가지며, 존댓말 원칙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규칙화되어 있다.

격식 수준의 구분:

“감사합니다”(공식적이고 격식 높은 표현, 주로 낯선 사람이나 상사에게 사용)와 “고맙습니다”(보다 친근하며, 동료 사이 또는 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 사이의 차이는 필수적이다. 잘못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실수를 넘어 사회적 예절 위반으로 간주되며, 존중을 훼손할 수 있다.

은혜/책임과 연계된 언어:

직접적인 감사 표현 외에도, 한국인들은 수고를 인정하고 노력에 대해 언급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수고하세요”는 상대방이 기울인 수고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현대적 맥락에서는 사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존재는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타인의 노력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중시하며, 감사의 말과 상응하는 행동 간의 균형을 강조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감사의 뉘앙스를 강조 정도와 호칭의 유연성을 통해 표현하는 반면, 한국은 필수적인 존댓말 계층과 명확하게 구분된 언어 표현을 통해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문화에서 언어적 표현의 모든 측면에 계층적 질서 체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4.3. 제스처 비교: 한국에서의 두 손 사용과 베트남에서의 사용 방식 비교

물품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제스처는 중요한 비언어적 행위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위계 인식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의사소통에서 명함, 선물, 문서, 금전 등 물품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이며 규칙화된 의례로, 특히 상사, 연장자, 혹은 중요한 거래 상대와의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이다. 두 손 사용은 행위의 격식을 높이고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존경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물품이 클 경우, 최소한 한 손은 주거나 받는 사람의 팔꿈치나 팔에 닿아 보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한 손만 사용하는 경우(물품이 작거나 상황이 비공식적인 경우를 제외)에는 무례로 간주되며, 말의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심각한 존중 부족을 의미한다.

반면, 베트남의 의사소통에서 두 손을 사용하는 행위는 특히 가족 내 연장자나 명절과 같은 공식적 상황에서 선물이나 금전을 주고받을 때 가장 높은 존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행위는 의무적 규칙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적 비즈니스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빈도가 낮다. 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는 두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등한 관계나 빠른 상황에서는 한 손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국과 달리 심각한 무례로 간주되지 않으며, 존중은 주로 언어적 표현(호칭)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규칙화 정도와 사용 빈도에 있다. 한국에서 두 손을 사용하는 제스처는 거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위계 질서와 격식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의례인 반면, 베트남에서는 존중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행위이며 적용에 있어 유연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파트너와 주고받을 때 두 손 사용 의례를 반드시 준수하여 전문성과 존중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의사소통 의례 특징

한국과 베트남의 의사소통 예절은 모두 동아시아 유교 철학과 높은 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역사적 과정과 사회 구조의 차이로 인해 예절의 규범화 정도와 표현 방식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형성되었다.

첫째, 한국인의 의사소통 예절의 특징은 높은 규범성(High Formalization)과 엄격한 위계질서 준수에 있다. 한국 사회는 나이와 지위에 따른 명확한 계층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의사소통 예절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지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언어와 행동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언어 측면에서 한국어는 복잡한 존댓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수적인 문법 규칙을 통해 의사소통자는 상대방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어미와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행동 측면에서는 고개 숙여 인사하기, 두 손으로 물건 주고받기 등의 비언어적 예절이 엄격한 공식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며(예: 고개 숙이는 각도는 상대의 지위에 따라 달라야 함), 한국 예절의 궁극적 목표는 체면(face)을 유지하고 표면적 조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절에서의 어떠한 일탈도 무례하거나 교양 없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쉽다.

둘째, 베트남인의 의사소통 예절의 특징은 유연성과 정서적 지향성(Flexibility and Sentiment-oriented)이다. 비록 위계와 예의를 중시하지만, 베트남의 의사소통 예절은 마을 공동체 문화와 집단적 성격의 영향을 깊이 받아 사회적 관계를 ‘가족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친족 관계에 기반한 풍부한 호칭 체계(예: Anh, Chị, Cô, Chú, Bác)를 통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베트남인은 사회적 거리를 빠르게 좁히고 업무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한국의 엄격함과 달리, 베트남의 예절 행위(인사: 고개 끄덕이기, 악수하기, 물건 주고받기)는

매우 유연하며 상황과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 의사소통의 핵심 가치는 ‘이성’과 ‘정’의 균형으로, 진심과 성실한 태도가 인정될 경우 작은 예절 실수는 쉽게 용인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는 의례의 작동 메커니즘에 있다. 한국인에게 의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엄격한 사회 통제 도구인 반면, 베트남인에게 의례는 정서와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유연한 연결 도구이다. ‘규율 중시’와 ‘정 중심’의 이러한 대조는 다문화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의사소통 갈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의사소통 예절은 모두 동아시아 유교 철학과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의 특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 사회의 역사적 과정과 사회 구조의 차이로 인해 예절의 특성, 특히 규범화 정도와 표현 방식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형성되었다. 1차 실증 조사 자료는 두 사회에서 예절의 역할과 행동 양식의 차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1. 한국인의 의사소통 예절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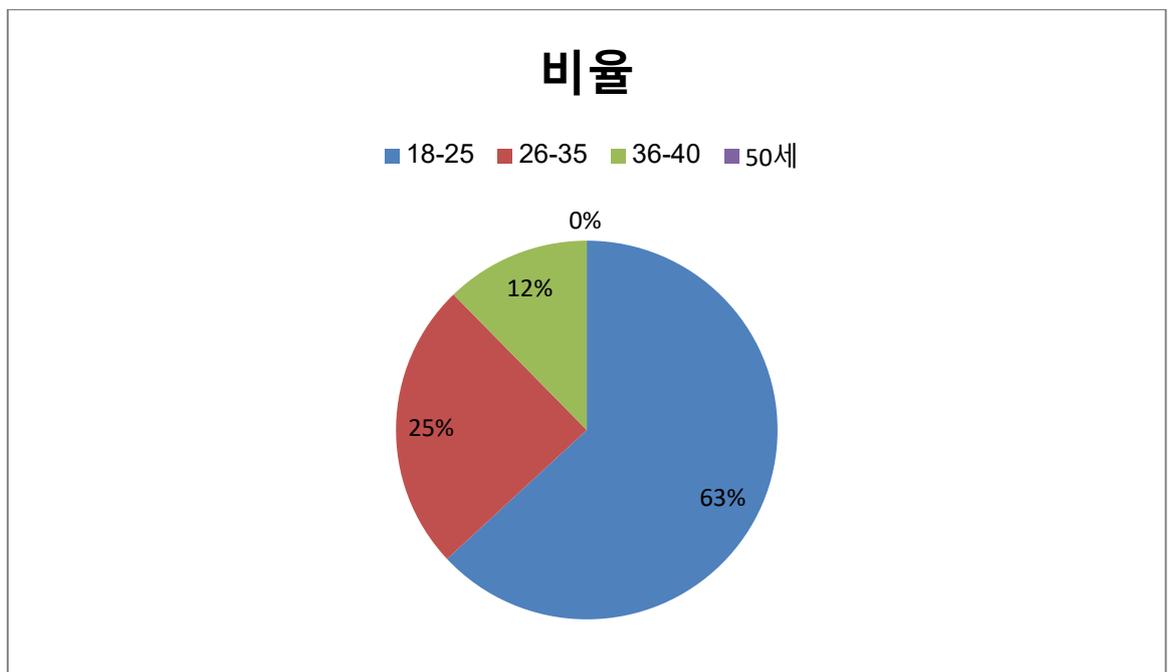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과하다

한국 사회는 명확한 계층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의사소통 예절은 이러한 지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필수 문법 규칙을 갖춘 존댓말 체계에서 잘 드러난다.

- 한국인 응답자가 인사 예절에 만점(5 점)을 부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응답 군이 사회적 규범을 전수하는 '교사' 집단이자 사회 활동이 활발한 '26~35 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젊은 전문직 계층에서도 전통적인 위계 존중과 격식 중심의 의사소통 가치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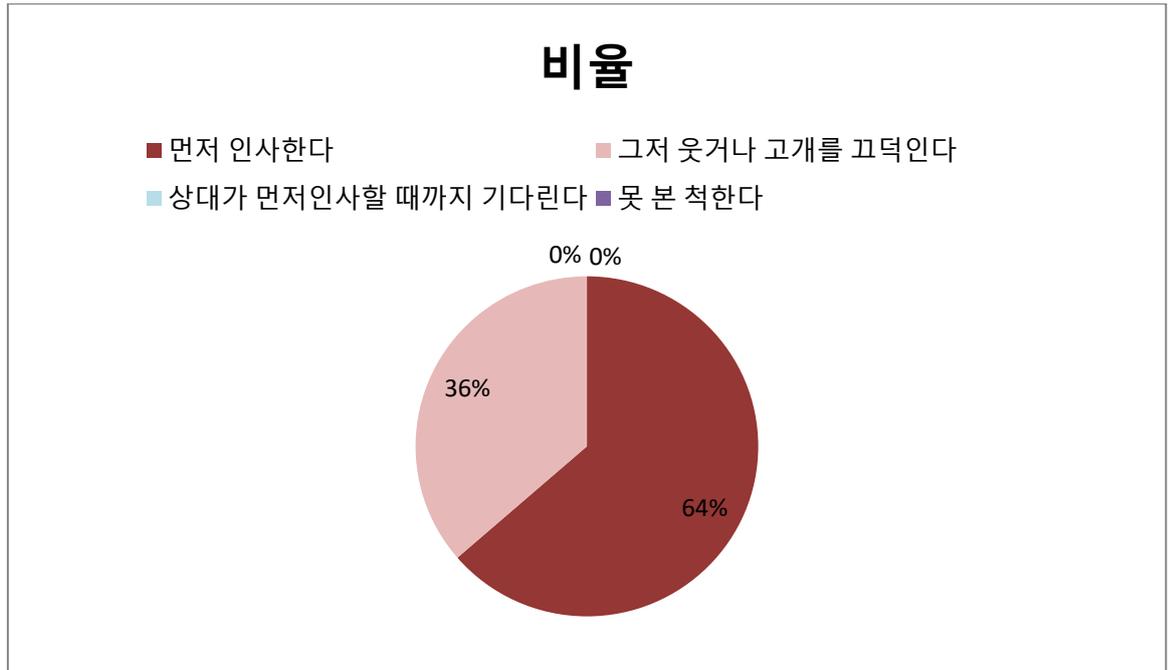
속에서도 인사 의례가 가진 관계 설정 기능이 변함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론적 가설과 일치한다.

- 고개 숙여 인사하기와 같은 비언어적 예절은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한 공식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한국인 응답자들이 인사 예절에 만점(5 점)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비언어적 행위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위계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척도임을 입증한다.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18~25 세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인 63%를 차지하며, 처음 만났을 때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끄덕이는 행동이 중요한 의사소통 예절이라고 동의하였다. 이는 오늘날 젊은 층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행동의 역할, 특히 격식을 갖춘 상황이나 첫 만남에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생활 양식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8~25 세 연령대는 전통적 의사소통 규범을 여전히 중시한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서는 고개 숙여 인사하기, 베트남 문화에서는 정중함과 존중을 나타내는 끄덕임이 그렇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문화적 가치의 계승과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사 행동(고개 숙이기/끄덕임)이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평가: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대다수(70%)가 타인을 만났을 때 능동적으로 인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30%는 말로 하는 인사 대신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 인사를 선택하였다. 이는 능동적인 인사 행동이 단순 비언어적 인사보다 여전히 더 일반적인 선택임을 보여준다.

특히, 참가자 중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거나 상대를 못 본 척하는 방식은 선택한 사람이 없었으며, 두 가지 모두 0%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의식을 반영하며, 능동적인 인사가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일상적인 예절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5.2. 베트남인의 의사소통 예절 특징

베트남 의사소통 예절의 두드러진 특징은 **유연성과 정서 중심(Flexibility and Sentiment-oriented)에 있다. 이러한 예절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 가족화 경향과 유연한 호칭 사용: 베트남의 의사소통 예절은 친족 관계에 따른 호칭 체계("Anh", "Chi", "Cô", "Chú")를 통해 개인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 일상적 상호작용에서의 행동: 베트남 사람들은 적극성과 예절을 우선시한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인사하기” 또는 “단순히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가 일반적이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기”를 우선시한다.
- 조사 결과: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지만, 일부 의견에서는 “한국에서는 흔하지만, 베트남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언급되었다. 이는 베트남의 의사소통 예절이 유연하며 규칙화가 덜 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 친구에게 거절할 때, 베트남 사람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거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주거나 참여할 수 없다”**와 같이 간접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사용한다. 이는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한 간접적 공손 전략을 적용함을 보여준다.

의례적 특징	한국 (엄격한 규범)	베트남 (정감 중심)
역할	상하 관계와 엄숙함 강조	친근하고 유연한 관계 형성
메커니즘	필수 문법 존댓말 체계	친족 기반 호칭 체계 및

	<p>및 공식화된 비언어적 행동 사용 (인사, 양손으로 주고받기)</p>	<p>유연한 비언어적 행동 사용 (악수, 미소)</p>
<p>조사 데이터</p>	<p>의례 중요도 5/5.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명확하고 필수적.</p>	<p>의례 중요도 3/5~5/5. 인사 행동은 주도적으로 먼저 함. 거절 시 객관적 이유 사용</p>

제 3: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원인, 문제 및 권고

1. 문화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

베트남과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 차이는 주로 역사, 지리적 요인과 유교적 가치관의 깊은 영향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위계 중심의 의사소통 체계가 형성된다.

유교의 영향은 연장자, 상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이는 한국에서 연장자, 높은 직위자, 혹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 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관습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이 큰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다.

반면, 베트남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마을 공동체 문화와 결합되어 존중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친근한 특징을 갖는다. 베트남은 연장자와 교사에 대한 존경을 중시하지만, 위계 체계는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다.

이 차이는 복잡한 호칭 체계(예: 형, 누나, 이모, 삼촌, 할아버지/할머니, 조카 등)를 통해 나이와 관계에 따른 존중을 표현하는 베트남식 방식에서 잘 드러나며, 한국의 문법적 의무인 존댓말 체계와는 구별된다.

- ▶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은 의사소통에서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를 중시하며, 가족, 개인 생활, 직업에 대한 친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이는 친근함과 성실함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간주된다.
- ▶ 한국: 한국에서는 의사소통에서 신중함과 사적인 영역 존중을 중시한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며,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몸짓과 비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2. 한-베트남 의사소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 존댓말 및 호칭 오류: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식 호칭 체계("Anh", "Chi", "Chú")를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를 빠르게 좁히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한국어 의사소통에 적용할 경우, 베트남 사람들은 무심코 존댓말 오류(Jondaemal Error)를 범하거나 상사/연장자에게 지나치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존댓말 사용을 계급과 지위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나타내는 필수 예절로 여기는 반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친밀도를 표현하는 유연한 도구로 본다.
- ▶ 물품 주고받기 예절 오류: 베트남 사람들이 공식적인 상황에서 명함이나 문서를 한 손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잦다.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에서는 두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 필수 예절로, 한 손 사용은 존중 부족으로 간주되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 ▶ 사회적 상황에서의 정중한 거절 오류: 베트남 사람들은 음식, 술, 선물을 첫 번째 제안에서 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2~3 회 정도 정중히 거절한 후 받아들이는 것이 예절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탐욕스럽거나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 ▶ 감사 표현 빈도 차이로 인한 갈등: 한국인은 작은 상호작용에서도 인사와 함께 자주 감사 표현을 사용한다. 반면, 베트남인은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집단주의 문화에 따라 자주 감사 인사를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은 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 ▶ 거절 예절 오해: 한국인은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 지연, 주제 전환 등 간접적 방식으로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인은 이를 동의나 협상의 신호로 오해하여 압박을 계속하거나 요구를 반복할 수 있으며, 한국인에게는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하고 간접적 거절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한-베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언어 오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적 규범 체계 간의 충돌이다. 베트남인은 한국 예절(존댓말, 인사, 감사

표현 빈도)의 절대적 규범성을 준수하여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3. 권장 사항 및 해결 방안

베트남-한국 간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방안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는 존댓말 사용, 예절, 정중한 거절 방식, 감사 표현의 빈도 등과 관련된 오류가 문화적 규범과 언어 체계의 차이로 인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교육, 사회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3.1. 존댓말 사용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

우선, 한국어에서 존댓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의사소통에 활용할 때,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문법 구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연령, 지위와 연계된 존댓말 사용 맥락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인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공손함을 선택하여 존중 부족의 인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3.2. 의사소통 예절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

예절과 관련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하고,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특정 맥락(업무, 일상, 학술 환경)에서의 예절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연한 태도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권장함으로써 예절 실수 시 부정적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3.3. 정중하지 않은 거절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

정중하지 않은 거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소통 참여자에게 상대 문화에 적합한 거절 전략을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과 표현, 간단한 설명, 완화 요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모국 문화의 거절 방식을 기계적으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도나 태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3.4. 감사 표현 빈도 충돌에 대한 해결 방안

감사 표현 빈도 충돌은 주로 공손함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한국어에서는 반복적인 감사 표현이 존중과 공손을 나타내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지나친 반복이 형식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면 상대방의 기대에 맞게 감사 표현 빈도를 조절할 수 있다.

3.5. 거절 예절 오해에 대한 해결 방안

거절 예절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두 문화에서 거절 행동이 갖는 간접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의사소통 참여자는 언어적 함의를 읽는 능력을 갖추고, 지연, 회피, 객관적 이유 제시와 같은 간접 거절의 신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중하게 재확인하는 것도 오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한-베 의사소통 문제는 문화적 인식을 높이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며,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의사소통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단순히 의사소통 오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언어 공동체 간의 이해와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1. 내용 개요 (Naeyong Gaeyo)

본 연구는 응대 문화 및 상호문화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적 문제들을 체계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응대 문화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문화권 간의 의사소통 및 응대 방식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비교·대조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베트남과 한국 모두 유교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위계질서, 예의, 공동체 관계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맥락, 태도,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의사소통의 의미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 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는 고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응대 문화는 높은 수준의 **규칙화**를 보여주며, 의사소통 의례와 예절 규범이 엄격하고 명확하며 형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응대 문화는 여전히 예의와 위계질서를 중시하지만,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부드럽고, 적응력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 국가의 전통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역사적 발전 과정, 사회적 조건, 그리고 현대화 수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2. 연구 결과 (Yeongu Gyeol gwa)

이론적 근거와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의사소통 의례 실천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밝혀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 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의례의 표준화 정도와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2.1. 인사 의례 (Greeting Ritual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정의 첫 단계인 인사 의례에서 한국의 엄격한 규칙성과 베트남의 유연성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한국: 규칙화 및 위계 정립 (Formalization and Hierarchy Establishment)

- **높은 규격화:** 한국의 인사 행동은 높은 수준의 규칙성과 엄격성을 지니며, 대화 시작과 동시에 사회적 위계를 정립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 **절 (Jel) 중심의 형식:** 주된 형식은 절 (Jel), 즉 허리를 숙이는 인사이며, 상대방의 지위와 연령에 따라 절의 깊이 (15°에서 90°까지)와 자세 유지 시간이 정확하게 규정됩니다.
- **예의 준수:** 절의 각도를 잘못 이행하거나 인사 의례 자체를 생략할 경우, 무례하거나 위계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유연성 및 관계 지향 (Flexibility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 **유연하고 다각적인 표현:** 베트남의 인사 의례는 유연성을 보이며, 가벼운 고갯짓, 미소, 혹은 악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반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관계 시작 기능:** 인사 자체의 주된 기능은 엄격한 위계질서를 부과하기보다는 관계를 시작하고 환대를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 **'가족화'된 호칭 시스템:** 인사와 동시에 "Anh(오빠/형)", "Chi(언니/누나)", "Cô(고모/이모)", "Chú(삼촌)"와 같은 가족 호칭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회적 거리를 빠르게 좁히고 친밀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2. 감사 의례 (Thanking Rituals)

감사 의례의 차이는 주로 사용 빈도, 격식의 정도, 그리고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국: 높은 빈도와 의무적 성격 (High Frequency and Obligatory Nature)

의무적 빈도: 한국에서 감사의 표현은 일상생활의 작은 상호작용에서도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이는 필수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됩니다.

경어법의 명확한 구분: 언어적으로는 경어의 수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며 (예: 감사합니다 가고맙습니다 보다 격식 있음),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가벼운 목례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손 사용 규칙: 물품을 주고받을 때 감사의 표현과 함께 두 손 (또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받치는 행위)을 사용하는 것은 존경심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의례이며, 한 손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무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베트남: 낮은 빈도와 정서적 가치 (Lower Frequency and Emotional Value)

선택적 사용 빈도: 감사의 표현 빈도는 한국보다 낮으며, 주로 중요한 상황이나 큰 도움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감사를 지나치게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격식 차림'이나 심지어 거리감을 두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비언어적 표현: 감사의 비언어적 행동은 유연성이 높습니다. 비록 두 손 사용이 존중을 표현하는 행위로 권장되지만 (특히 연장자에게), 대등한 관계에서는 한국만큼 엄격하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3. 거절 의례(Refusing Rituals)

베트남과 한국의 두 문화는 모두 체면 유지(Face-saving)를 중시하여 직접적인 거절을 회피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거절을 수행하는 전략과 의례적 방식에서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

공통점:

직접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행위는 무례하거나 금기시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양국 모두 간접적 공손성 전략(Indirect Politeness Strategy)을 활용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거절의 지연, 객관적인 이유 제시, 그리고 거절에 앞선 사과 표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고 상호 관계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전략 및 의례상의 차이점:

한국의 경우, 거절 행위는 체면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침묵이나 장기간의 응답 지연과 같은 고도의 함축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선물이나 초대 상황에서는 ‘반복적 거절’이라는 암묵적 규범이 존재하여, 상대방의 호의를 존중하고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 수차례(보통 2~3 회) 정중하게 거절한 뒤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례로 여겨진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거절 표현은 감정적·관계적 요소를 강조한 이유 제시나 비교적 장황한 설명을 통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인 관계의 화기애애함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선물 수수와 관련된 거절 의례는 한국에 비해 덜 경직되어 있어, 완전한 거절 대신 비교적 이른 시점에서 수락하거나 일부만 받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종합적 결론:

양국의 거절 의례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는 그 작동 메커니즘에 있다. 한국의 거절 의례는 사회적 질서와 위계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범성과 형식성을 중시하는 반면, 베트남의 거절 의례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인간관계의 정(情)을 중시하며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과 대인 관계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존댓말 사용 오류, 거절 태도에 대한 오해, 감사 표현 빈도의 차이 등과 같은 의사소통 갈등의 주요 원인이 단순한 언어 장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규범성과 엄격성’과 베트남 문화의 ‘유연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의 충돌에 기인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양국 간 의사소통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맥락과 위계 질서에 밀접하게 연관된 존댓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인사 시의 목례, 물건을 주고받을 때의 두 손 사용 등과 같은 비언어적 의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간접적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익숙한 유연성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로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전문성과 존중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베트남과 한국 간의 포괄적 협력 관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양국의 의사소통 문화에 내재된 가치 체계와 그 위계적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문화 환경에서 학습하거나 근무하는 학생 및 실무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며,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의사소통 예절을 비교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조사 대상의 국한성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주로 26~35 세 사이의 젊은 전문직 계층(교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세대 간 차이나 지역적 특성, 혹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집단의 의사소통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정밀함이 부족할 수 있다.

둘째, 상황적 변수의 단순화이다. 의사소통 예절은 단순히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 대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대화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본 연구는 보편적인 규범에 집중한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예외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6.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천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모국어(베트남어) 간접 현상에 따른 오류 분석 연구이다. 베트남어의 유연한 호칭 체계가 한국어 경어법 사용에 미치는 '부적절한 전이(Negative Transfer)'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베트남 학습자 맞춤형 예절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드라마나 영화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오류 교정 효과 분석이다. 학습자들이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 속의 올바른 예절 사례와 본인의 오류를 대조해 보는 학습법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및 SNS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예절 연구이다. 최근 비대면 소통이 늘어남에 따라, 메신저나 이메일 작성 시 발생하는 예절 오류를 분석하여 현대적인 의사소통 지침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참고문헌 목록

1. TẠP CHÍ KHOA HỌC QUẢN LÝ GIÁO DỤC
2. TẠP CHÍ KHOA HỌC ĐẠI HỌC DẦU THỦ MỘT
3. Tạp chí khoa học DHSP TP.HCM
4. Tiếng hà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Việt Nam sơ cấp 1 trang 49
5. Nguyễn Văn Bảo “*Văn hóa chào hỏi của người Việt*” *Tạp chí văn hóa dân gian*, số 3, 2015, tr.50-58
6. Nguyễn Thị Vân Hạnh (2013). *A Comparison of Vietnamese and Korea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7. Kim Tae Kyu (2015). *Influence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Managers*
8. Nguyễn Quang(2018). *Giao tiếp liên văn hóa*.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